

아아...
미, 미림이만은...

원 상태로
돌려줘....

내가
뭐든 할 테니까...

함 짹

함 짹

함 짹

제발...

쿠쿠...

이 언니도 전에
똑같은 소리 하더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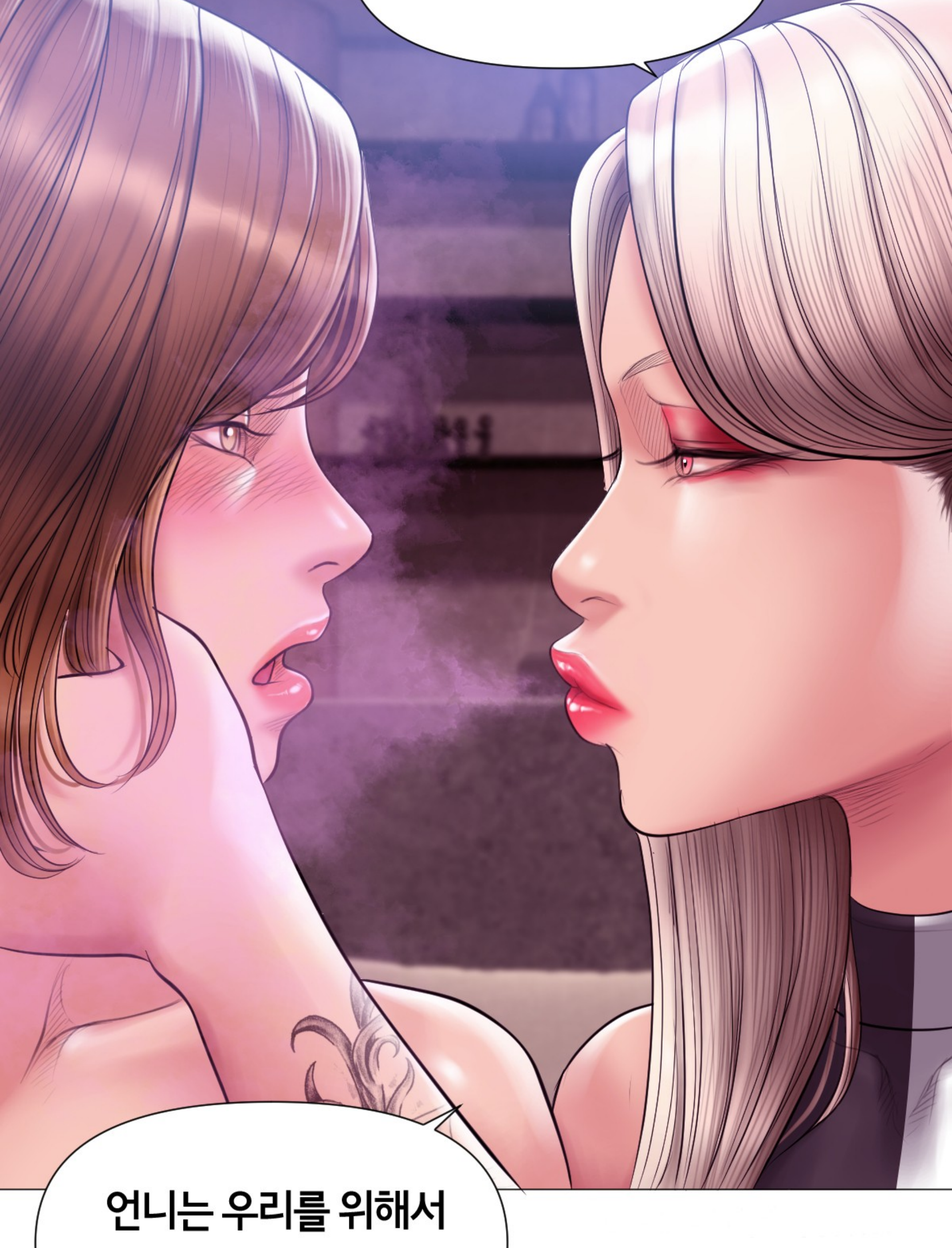


참 대단한 우정이야.

근데 그런
뻘한대사안통한다는 거
잘알지 않나?



어차피
그렇게 빌지 않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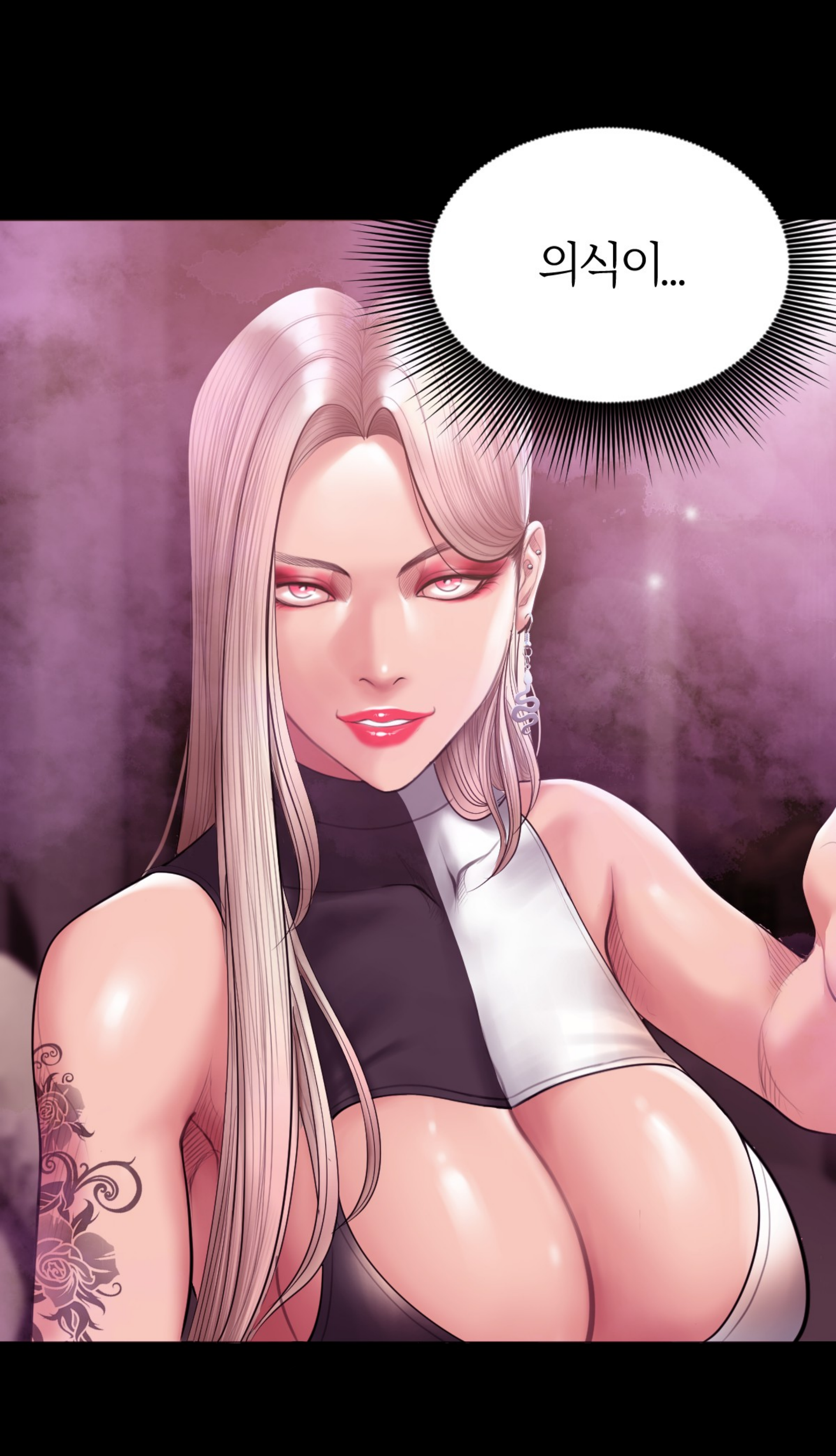


언니는 우리를 위해서
'뭐든' 하게 될 거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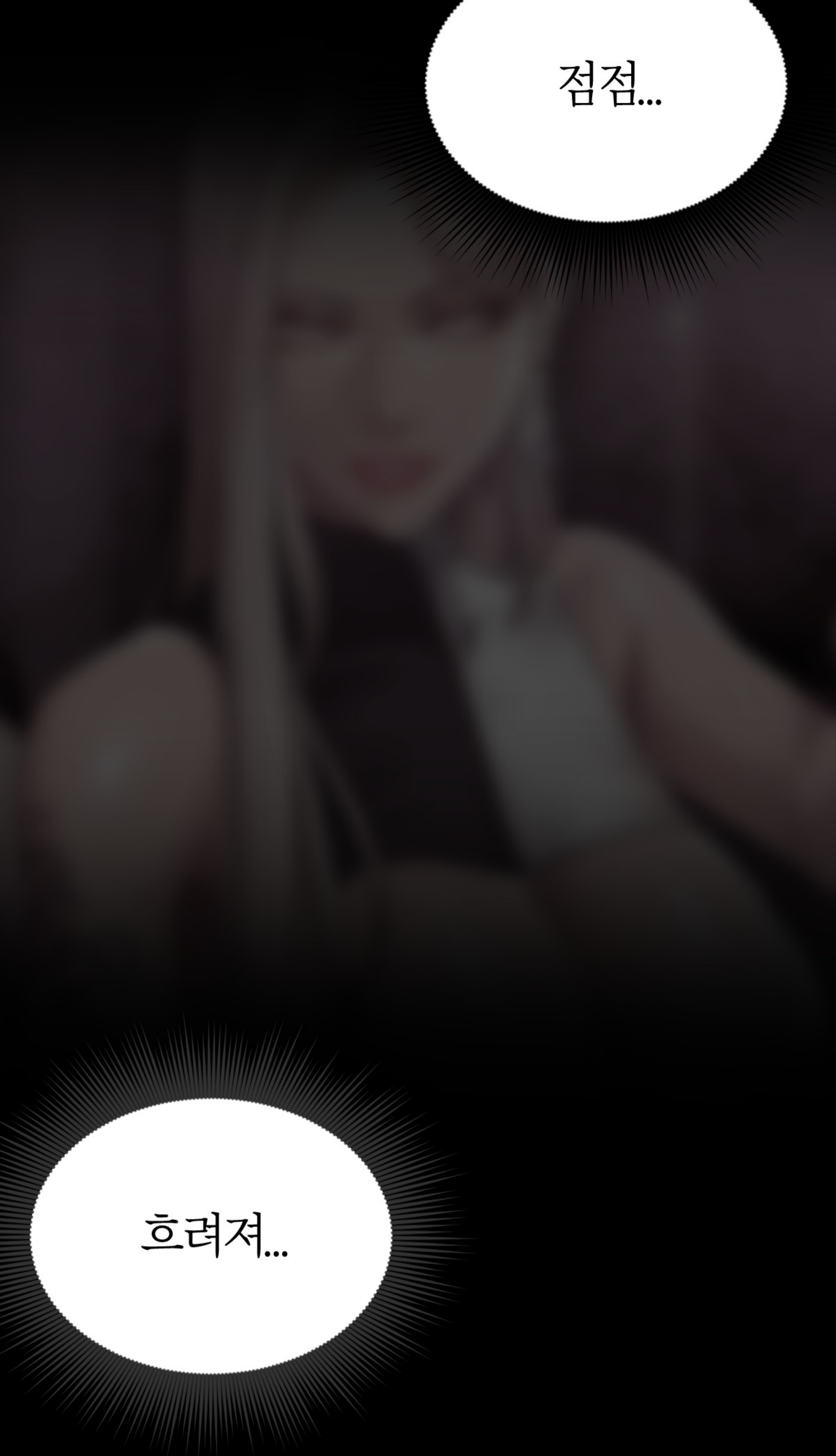
하아...



비, 빌어먹을...



의식이...



점점...



흐려져...



혼자
이방인이 된 거 같아
많이 외로웠지?

아
하
스
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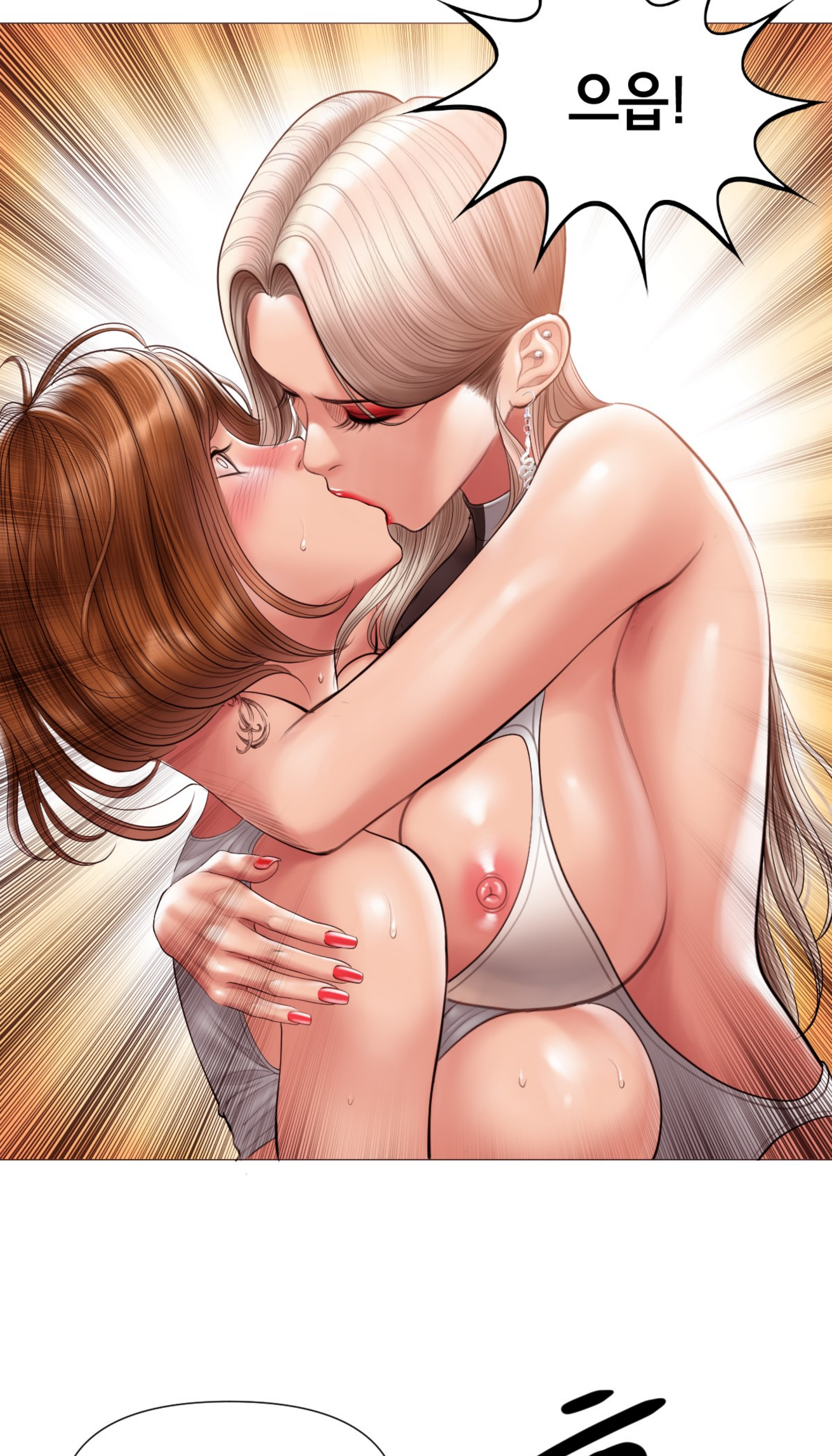


이젠
걱정할 거 없어.

으웃... ♡

문걸
문걸

언니도 우리 '문화'에
자연스럽게 융화될 거니까...



으음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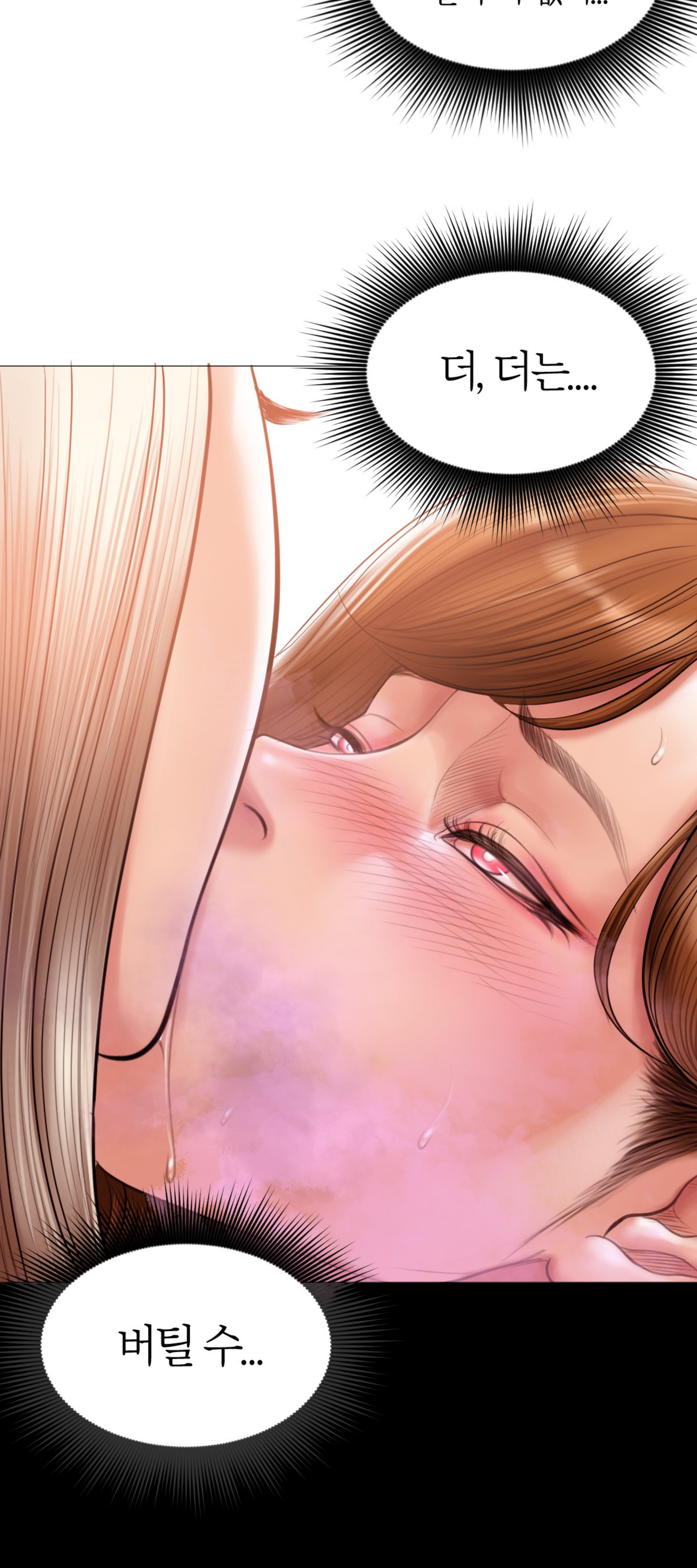
우웬...

아..
안돼..



몸에 힘이
빠져서...

아무것도
할 수가 없어..



더, 더는...

버틸 수..



... 지민 ...



이지민!



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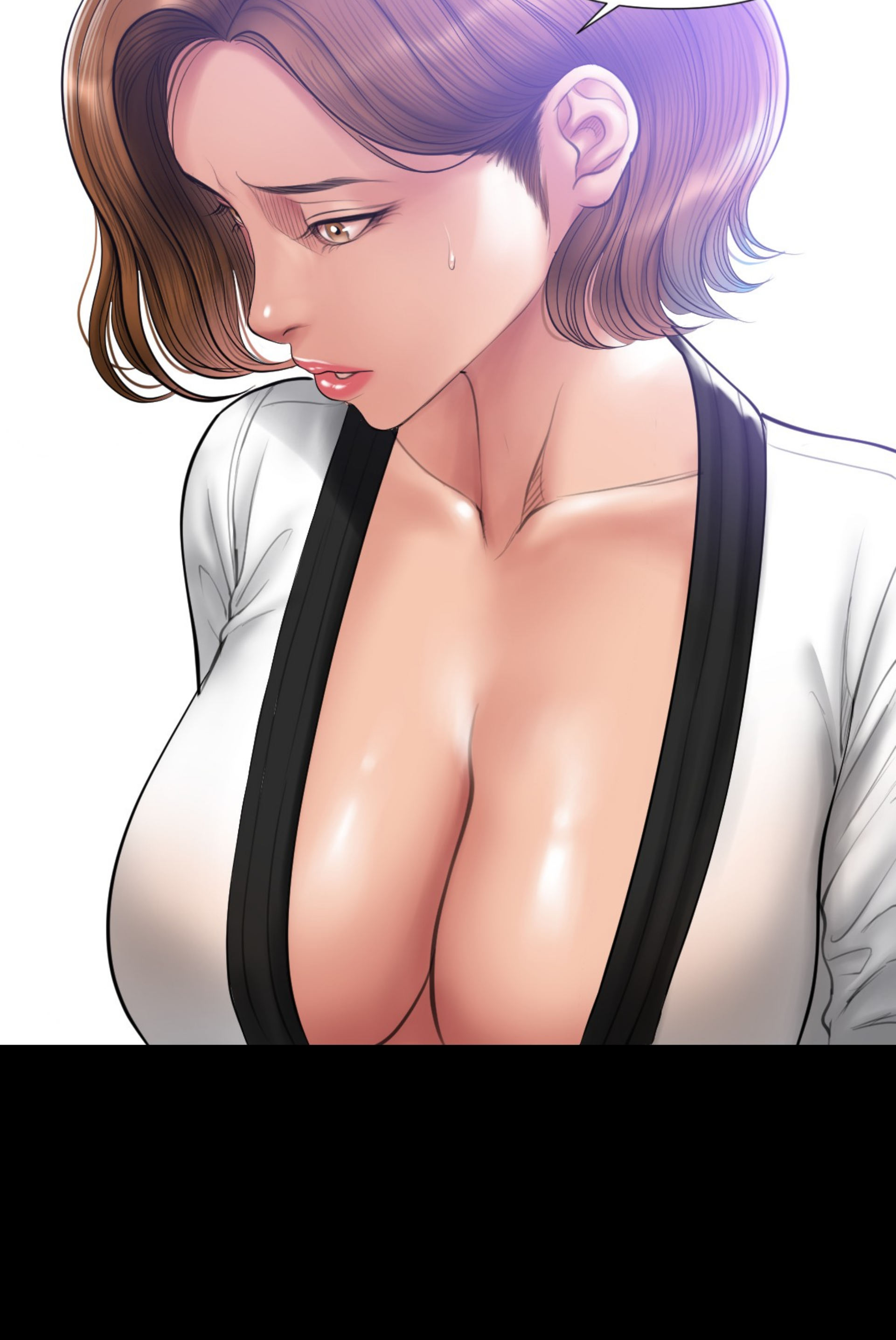


대련 중에 정신을
어디 팔고 있는 거야?



...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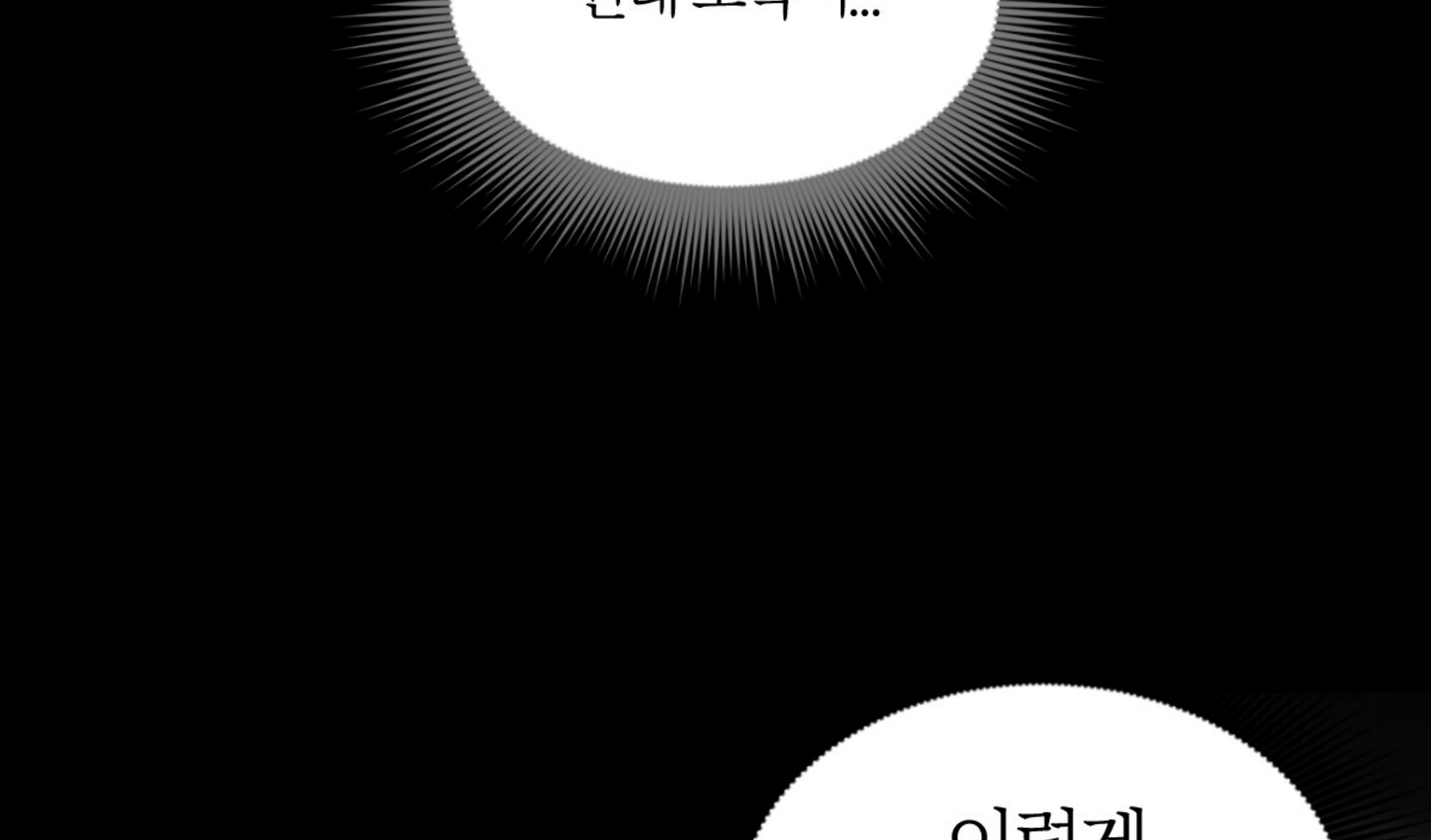
아...



뭐지...?



원래 도복이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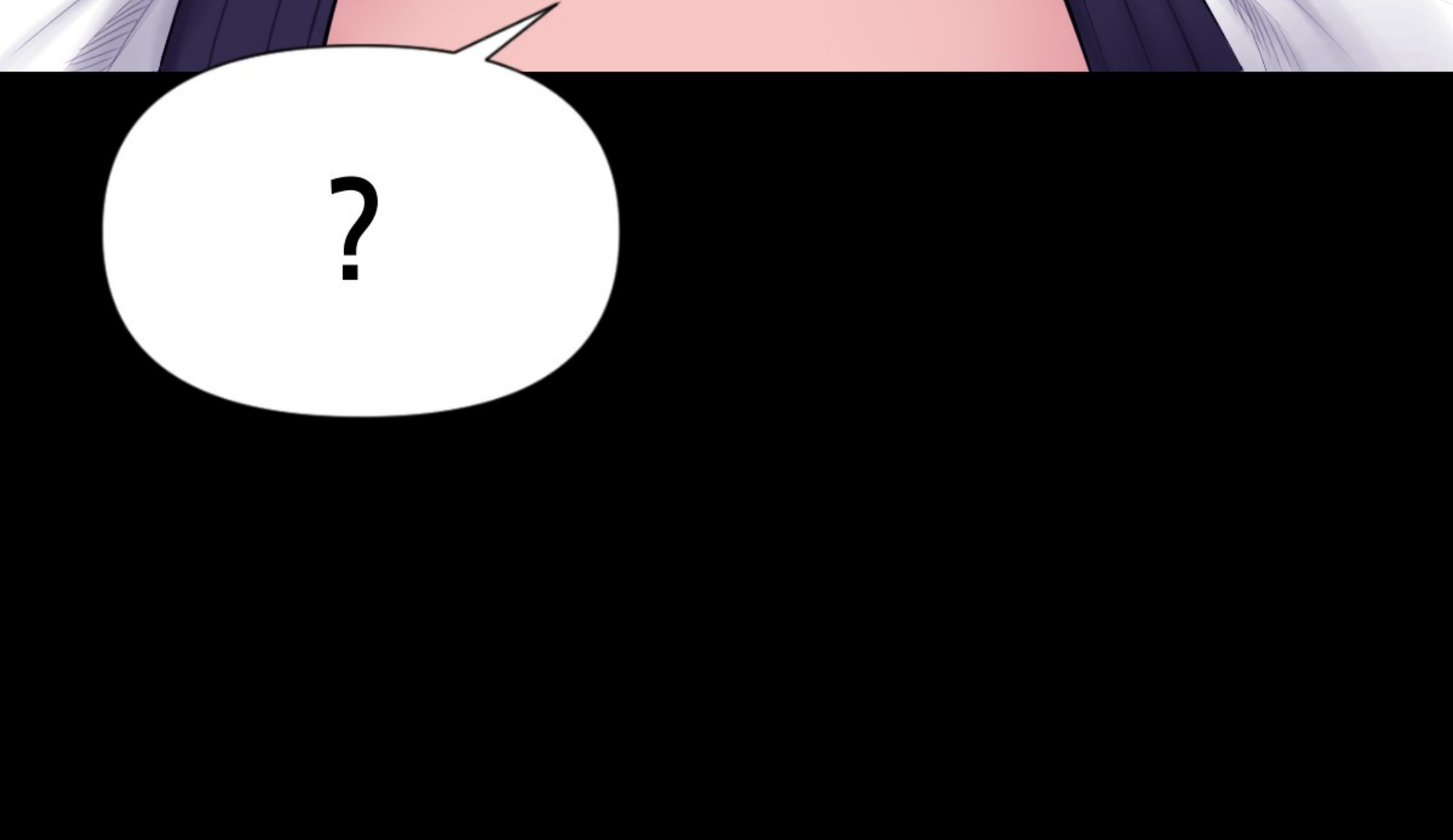
이렇게
생겼던...가?



이제야
에로한 엉덩이에
걸맞는 옷을 입었군?



?





암컷들은 역시
꿀릿한 옷을 입어야
제맛이지...
크크크!

아하앗...♡



하으응...♡

.....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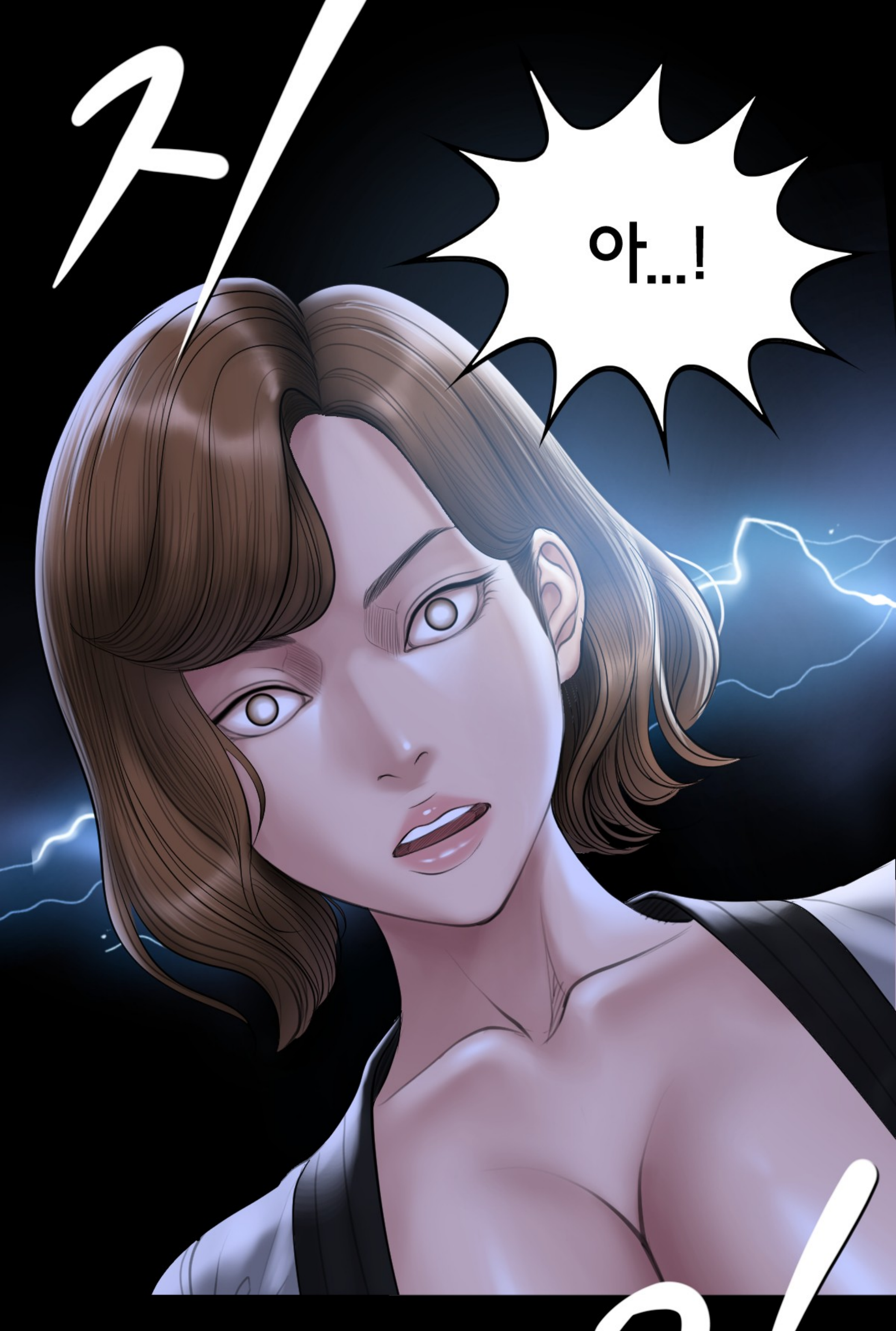
뭐, 뭔가
이상해!

이건 진짜가
아닌...

파



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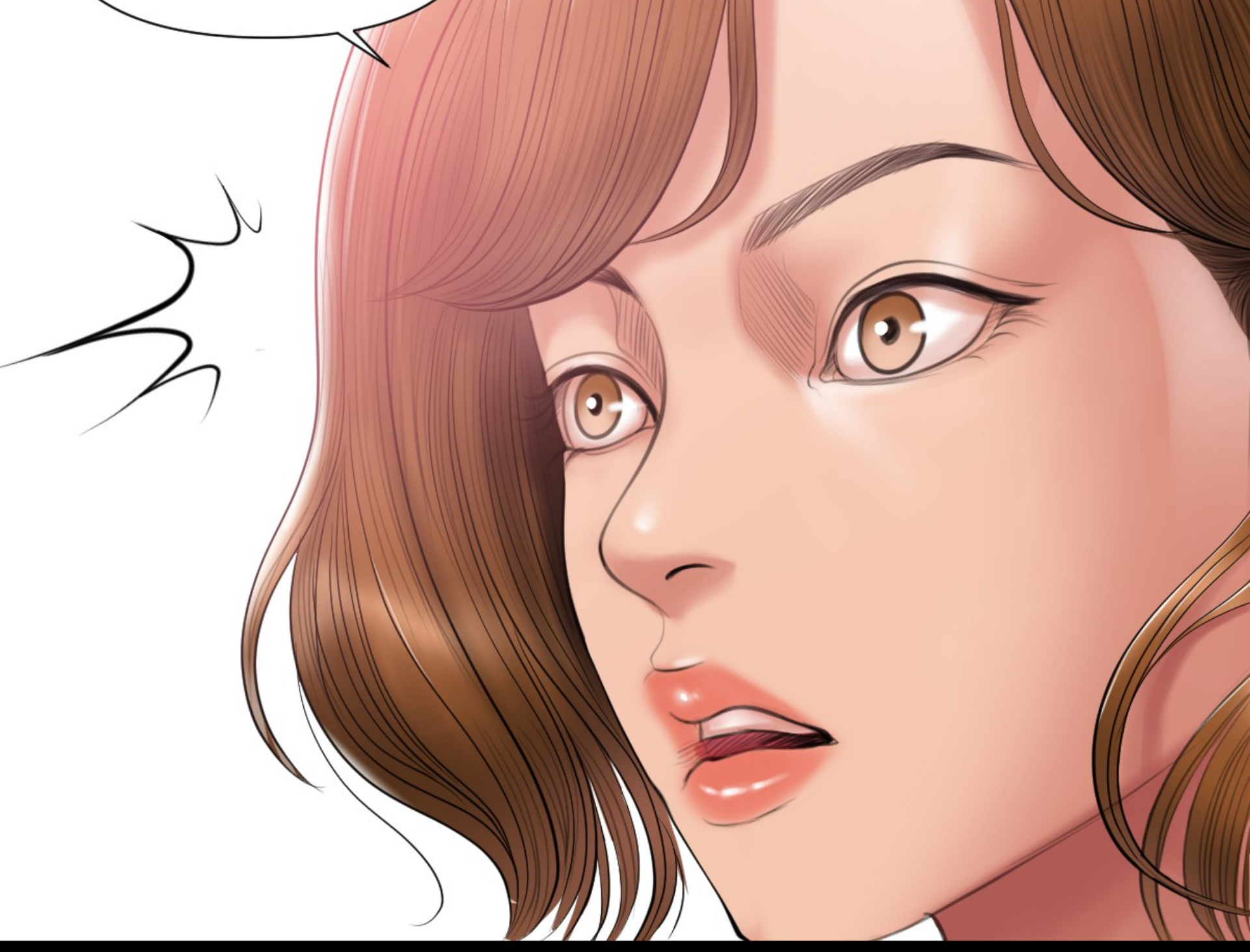


아...!

잉!

뭐가
이상하다는 거지,
이지민 경위?

...에?



방금 그렇게
소리쳤잖아.

무슨 문제라도
있나?



!

아.....
아뇨, 아무것도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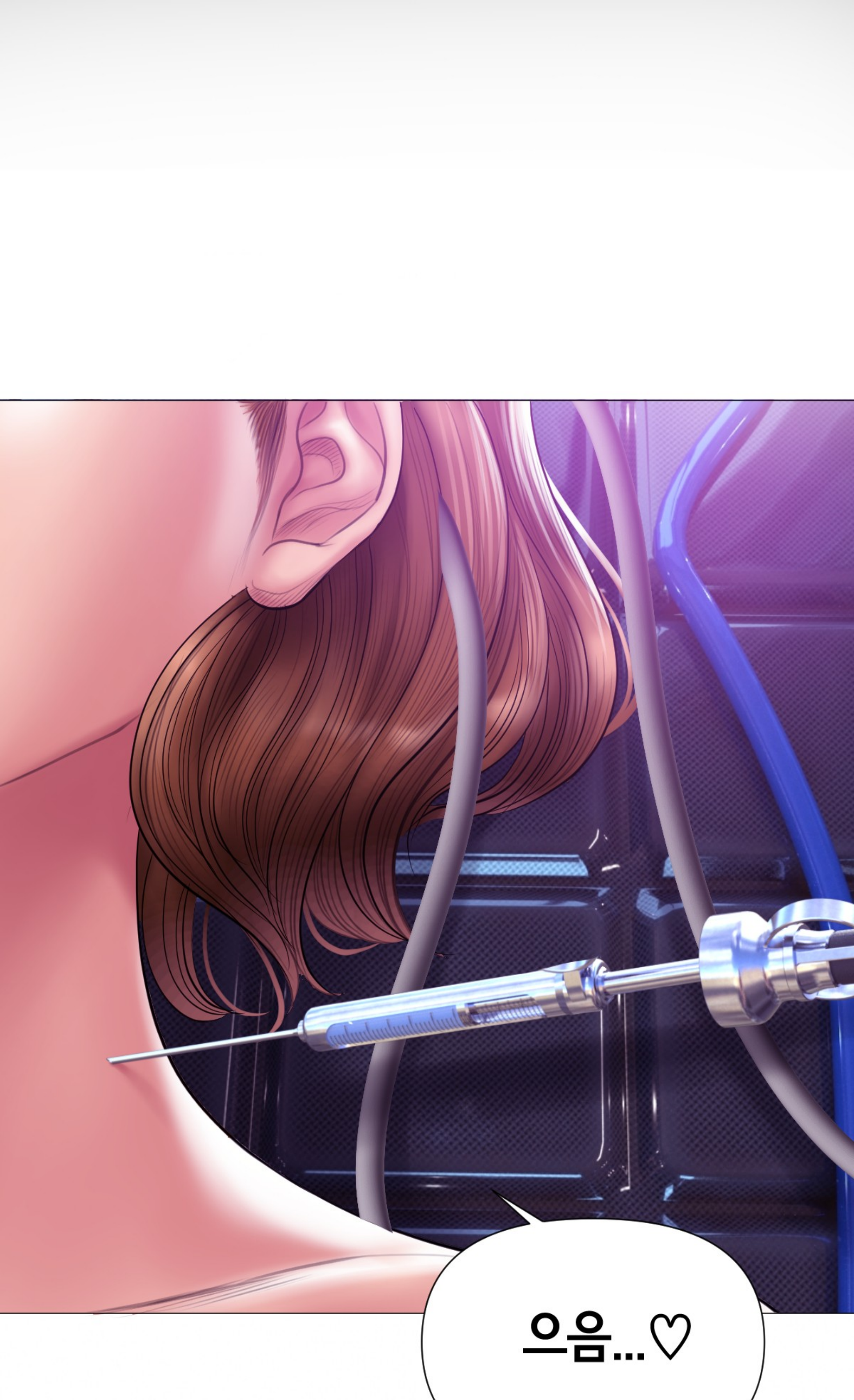


뭐야... 갑자기
왜 그랬지?



도복은 원래...

이렇게 생긴
옷이었는데.



으음... ♡



하아아...



뭘 주입한 거지?